

“봉사활동 통해 부처님 만났어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포교가 가능할까? 부산 흥법사(주지 심신)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7년 3월부터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열리는 영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다. 영어 템플스테이는 아이들을 위한 포교·교육 프로그램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봉사하며 부처님 법을 배우게 하는 포교사 역할도 특색이 있고 있다.

1월 25일부터 시작된 영어 템플스테이 일정의 막바지인 28일 저녁 발우 공양 시간, 흥법사 법당에서 외국인 교사 린다(Lynda Sullivan·25)와 매건(Maegan M Quamie·27)을 만났다. 발우공양을 마친 후 휴식 시간, 밝게 웃는 아이들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의 지긋은 장난과 서툰 영어에도 정그러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참여했지만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면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

흥법사 영어 템플스테이 봉사자 린다·매건



흥법사 영어 템플스테이 참가 어린이들과 함께한 매건(왼쪽)과 린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린다는 아일랜드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불교에 작게나마 관심 갖고 있었다고 한다. 만날 때에도 달라이 라마의 책을 들고 있는 린다는 차분한 모습에 고요한 분위

기가 인상적이었다. 3년 전 한국을 방문해 여러 사찰을 순례했다는 그녀는 불교와 인연이 있었는지 현재 종립 금정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금정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법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부처님 법이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아이들과 수계식에 참여하고 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박5일 동안 열린 영어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외국인 봉사자들만 해도 7명이 넘는다. 대부분 각 학교나 학원에서 이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강사들로 대

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다. 캐나다에서 온 매건은 현재 동영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일까? 그녀 주변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봉사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어제 저녁 예불은 아이들과 함께 통도사 법전에서 드렸죠. 아름다운 통도사의 모습과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예불 소리는 너무 환상적이라 그런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후에 있었던 명상 시간은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더욱 공부하고 배우고 싶어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그들을 향한 포교는 간단했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봉사의 기회를 주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게 일선 포교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불교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간과하지 않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호응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흥법사, 그 노력으로 만들어 갈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선다회사법회 10주년 기념법회

연발 조성 및 야생차발 일괄 계획



통도사선다회사법회 1월 24일 10주년 대례시연을 하고 있다.

통도사선다회사법회(회장 최해숙)가 10주년을 맞아 1월 24일 통도사 법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정우 스님, 포교국장 양관 스님, 포교과장 세봉 스님, 선다회 회원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했다. 방장 원명 스님은 직접 쓴

‘세계일화(世界一花)’ 휘호를 선물하며 선다회를 격려했고 주지 정우 스님은 “선다회가 야생차발과 연발 조성에 함께 동참해 통도사에 그윽한 차향이 가득하도록 뜻을 모아줄 것을 바란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최해숙 회장은 “선다회는 선

다(禪茶)를 통해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며 “저희 선다회는 옛것을 더욱 잘 배워 새것을 창조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전통문화 계승과 홍보, 연발과 야생차발 조성 등 통도사와 함께 차 문화의 선구자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공로상에 최해숙 회장, 봉사상에 이만옥 재무, 10년 개근상에 강선자 사범의 10명, 감사패에 김영숙 前 회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부에서는 대례시연 및 축시, 축가 등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통도사선다회사법회는 12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5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

인재불사를 위한 회향의 장이 마련됐다.

재단법인 연등장학회(이사장 법등)가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부산 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열었다. 부산, 경남지역 파라미터 청소년과 일반 대학생 및 불자연합회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법등 스님은 “종교에 상관없이 학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인재가 자라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줄 것을 발원하는 마음에서다”며 “인재불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연등장학회는 경북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이 2004년 6월 설립한 불교장학재단이다. 법

등 스님은 1956년 월정사로 출가해 1982년 조계종 사회부장 및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2석굴암에 주석 중이다.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총 2990만원을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0명 총 61명에게 지급했다. **하성미 기자**

신중단 및 신중맹화 봉인법회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 1월 25일 ‘신중단 및 신중맹화 봉인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효선 스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란다”며 참가한 100여명의 재가불자들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반야원 참마음간병사회 회원들

“바쁘고 힘든 만큼 보람 커요”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위치한 범어사 해운대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 가는 날은 바다 바람이 불어 더욱 출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그러나 보현행을 실천하는 반야원 참마음간병사회를 만나니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참마음간병사회를 설립한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병들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료업계에 불교복지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적고 의료서비스에 불교의 영역이 많지 않아 마음 편안하게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불

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통해 완벽한 간병인으로 태어난다. 또한 수료하고 나면 한국간병교육원에서 발급하는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간병사는 환자간호, 수발, 목욕봉사,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해운대 효은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오후 2교대로 봉사한다. 2008년 1월부터는 바쁜 손길을 나누어서 호부병원에도 매일 마지막 금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다.

참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회원 60명 지역병원 찾아 활동

‘입소문’ 퍼져 비불자들도 참여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참마음간병사회가 복지로 가는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2007년 9월 설립된 참마음간병사회 3기까지는 대부분 반야원의 신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입소문으로 외부에 알려진 4기부터는 비불자나 다른 절에 다니고 있는 불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손길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간병인 교육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개강하여 2주간 교육을 하는데 첫째 주에는 이론교육으로 호스피스, 노인간병총론, 산모 및 신생아간병 등을 교육하며 둘째 주에는 노인

참마음간병사회 회원 미경(법)

명 모신화)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간병인회가 불심으로 모인 단체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봉사를 해드리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고마운 눈빛을 전할 때 포교와 봉사를 함께하는 회원들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감사해 한다. 환자 중에는 불자도 있지만 타종교인도 있어 항상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말한다.

이들은 바쁜 손길 속에서 2월 부터 해운대 명성요양병원에 봉사 계획도 잡혀있다. 봉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는 허미경 회장은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회 사 정신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봉사 현장으로 달려간다. 반야원 (051)701-5655 **오세룡 부산지사장**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증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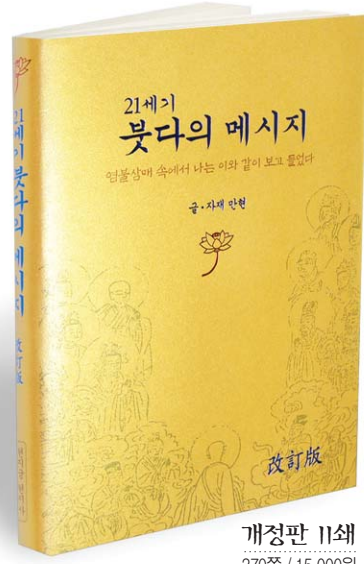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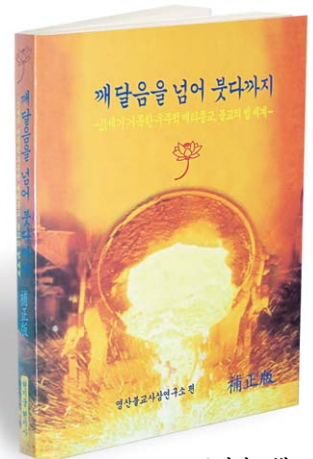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이어 12쇄 발행!!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 설명으로는, ○○○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크나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